

‘청년이 돌아오는 광양’... 청년공동체 활성화 첫 발

청년 성장 지원...10개팀 최종 선정 문화예술 활성화 버스킹 공연 활동 지역 활성화 플리마켓 기획·운영 등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활력 창출

광양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광양시는 지난 24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2024년 광양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광양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의 주제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14일까지 관내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발해 이번 8월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광양 청년공동체는 올해 말까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공연 및 뮤지컬 활동,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기획&운영 △청년 농업 컨설팅 △청년 네트워킹



광양시는 지난 24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2024년 광양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식전 행사로 정인화 광양시장과 청년들은 요즘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인

생네컷(즉석 사진)을 촬영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출범식은 지

난해 청년활동가 우수팀의 멘토 강의, 공동체 소개, 교류 및 소통 순서로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과 청년공동체는 광양이 청년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청춘energy-up 토크’ 순서에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가진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조건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층이 특히 그 비율이 높다”며 “현재 청년공동체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광양을 가꾸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양시에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9월, 풍성한 한가위 걷기 챌린지 운영

20만보 걸으면 20만 마일리지

광양시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9월, 풍성한 한가위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광양시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는 누적 9091여 명이 가입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걷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9월 걷기 챌린지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1걸음에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1일 최대 8000마일리지가 누적된다. 기간 중 목표 걸음수인 20만 보를 걸으면 20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탭에서 광양시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목표 마일리지가 쌓일 때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다만, 참여 지역이 광양으로 제한 설정돼 있어 챌린지 참여 시에 반드시 휴대전화 위치설정을 켜 두어야 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양시보건소(061-797-401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봉강면은 지난 23일 전기 관련 전문 봉사단체에서 봉강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 봉사를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한국전기기술협회,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봉사

광양시 봉강면은 지난 23일 전기 관련 전문 봉사단체에서 봉강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 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한국전기기술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최문한)가 주관했다. 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봉사 인력 28명은 5개 조로 나눠 차단기 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 교체, 노후 전선 점검, 불량 전선 무상 교체, 각종 전기기구 점검 및 보수 등의 선행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문한 한국전기기술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전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람이 늘어간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맞춤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영 봉강면장은 “노후 전기시설은 어렵게 사는 세대에게 평소에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너

무나 꼼꼼하게 살펴주셨고 불량이 있거나 노후화된 부분은 무상 교체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전기기술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전력 시설물의 질적 향상, 전기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 창립 연도인 1963년 이래로 전기기술인들의 상호 신뢰와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김두운 ㈜바이오스피에스 대표가 최근 5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300세트를 (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후원했다.

광양시 제공

바이오스피에스, 생활용품 300세트 후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전달

광양시는 ㈜바이오스피에스(대표 김두운)가 5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300세트를 (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두운 대표가 후원한 물품은 치약, 손세정제, 구강 청결제 3종 구성의 생활용품 300세트로 광양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300명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두운 ㈜바이오스피에스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손 세정제와 구강 청결제 등을 기탁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스피에스는 전남대 연구소 창업 바이오 기업으로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작두콩 소재를 첨가한 위생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노로-X 손세정제’ 개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보건소 “60세 이상·고위험군 코로나19 감염 주의”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광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코로나19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감염병 표본감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21일부터 27일까지(30주) 477명,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31주) 878명, 8월4일부터 10일까지(32주) 1359명

으로 지난 6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65세 이상인 환자가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0.1%로 계절독감 수준이지만 60세~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에서는 1.75%로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양시 보건소는 밀폐된 실내의 대규모 행사 방문은 피해야 하고 꼭 방문이 필요

한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좋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을 받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코로나19 확진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휴식을 배려해줄 것을 권고했다.

광양=안영준 기자